

# 한국목록규칙 4판에 반영된 목록의 유용성\*

## An Analysis of Usability of the Catalogue in the KCR4

이 창 수(Chang Soo Lee)\*\*

### < 목 차 >

I. 서 언	1. 긍정적인 면
II. 한국목록규칙의 표준화 과정	2. 부정적인 면
III. 한국목록규칙 4판에 반영된 목록의 유용성	IV. 결 언

### 초 록

이 연구는 한국에서의 목록규칙의 발전과정을 개관하면서 표준화의 과정을 살펴 본 후 가장 최근에 개정하여 출판된 한국목록규칙 4판을 중심으로 이 규칙에 반영되어 있는 중요한 몇 가지 목록의 유용성 문제를 분석하였다. 목록의 유용성 고려라는 측면에서 KCR4는 저록에 포함되는 책임표시의 수에 원칙적으로 제한을 가하지 않은 점, 기술 대상자료의 유형을 제시한 점, 자료의 서지적 특성을 제시하는 기술사항을 추가한 점, 단행본뿐만 아니라 다양한 유형의 자료를 대상으로 하는 통합 목록규칙이라는 점 등은 긍정적인 반면, 접근점의 선정과 형식을 전거에서 처리하도록 미룬 점, 통일표목의 개념을 배제한 점 등은 부정적인 면으로 분석되었다.

주제어: 한국목록규칙, 목록규칙, 목록, 유용성, 표준화

### ABSTRACT

In this paper we outline the evolving process of the cataloguing rules in Korea focused on the standardization. We analyzed the new and updated rules under the KCR4(Korean Cataloguing Rules, 4th edition) in terms of usability of the catalogue. Our findings can be summarized as follows: ① Since there are the rules of the unlimited number of the statement of responsibility, the access point is expanded and may bring the high searchability as a result, ② Since the rules of the general material designations are added, the catalogue users may easily identify the material, ③ Since the rules of the material specific details area are added, the catalogue users may easily understand the characteristics and other features of a publication, ④ The KCR4 seems a kind of the integrated cataloguing rules for diverse types of materials including the monographs, ⑤ Since the rules of choice and forms of the access point treated in the authority control, there seem some problems in usability of the catalogue, ⑥ The concept of the uniform heading is eliminated which seems considered only for the convenience of the cataloguers not for usability of the catalogue.

Key Words: Korean Cataloguing Rules, Kcr, Cataloguing Rules, Catalogue, Usability, Standardization

\* 이 논문은 Central Asian Association for Korean Studies 주관의 The 5th International Conference on Korean Studies(2005.6.30-7.1, Bishkek, Kyrgyzstan)에서 발표된 내용을 수정한 것임.

\*\* 경북대학교 사회과학대학 문헌정보학과 교수(csl@mail.knu.ac.kr)

• 접수일: 2005년 8월 20일 • 최초심사일: 2005년 8월 25일 • 최종심사일: 2005년 9월 5일

## I. 서 언

도서관에서 장서의 목록을 작성할 때 일관된 작업이 될 수 있도록 기술요소와 형식을 정해 놓은 성문화된 규칙을 목록규칙이라 한다. 한국에서의 표준 목록규칙은 한국목록규칙(Korean Cataloging Rules: KCR이라 약칭함)이다. KCR은 1964년 초판을 탄생시킨 이래 1966년 제2판, 1983년 제3판, 1990년 3.1판, 2003년 제4판을 발간하였다. KCR이 발간되기 이전에도 한국에서는 여러 가지 목록규칙들이 사용되었다.

한국의 도서관에서의 근대적인 목록규칙의 적용은 일제시대부터이며, 한국인에 의해서 만들어진 목록규칙은 해방 후부터이다. 고려시대 불전목록이나 조선조의 책자형 목록들은 성문화된 목록규칙에 근거하여 편성된 것이 아니고 개별 목록 단위로 별도의 기술 형식을 적용한 것이었다. 그리고 접근점도 서명을 위주로 한 단식의 목록체계를 이루고 있다.

성문화된 근대적인 목록규칙이 한국에서 적용되기 시작한 것은 일제시대에 조선총독부도서관, 경성제국대학도서관 등에서 동양서 목록에는 당시 일본에서 제정한 和漢圖書目錄編纂規則(일본 문고협회, 1893), 和漢圖書目錄編纂概則(일본도서관협회, 1910), 和漢圖書目錄法(일본도서관협회 화한도서목록법 조사위원회, 1932년) 등을 사용하였으며, 서양서 목록에는 'Condensed Rules for an Author and Title Catalog'(ALA, 1883)나 이를 일본어로 번역한 洋書著者書名目錄編纂略則(일본도서관협회, 1915) 그리고 'Catalog Rules: Author and Title Entries'(ALA, 1908: Anglo American Code라 약칭함) 등을 사용하였다. 이들 일본에서 제정한 목록규칙들은 기술사항이나 형식에 있어서는 서양식의 목록규칙의 체계를 따르고 있으나 표목은 여전히 동양의 전통에 따라 서명을 우선 기입하는 방식을 적용하고 있으며, ALA의 규칙들은 파니치(Anthony Panizzi)의 대영박물관목록규칙(Rules for the Compilation of the Catalog in Catalogue of Printed Books in the British Museum, 1841)이래 영미목록규칙에서 적용되어 오던 저자명 기본표목 선정원칙을 따르고 있다.

한국인에 의하여 편찬된 최초의 근대적인 목록규칙은 박봉석이 편찬한 朝鮮東書編目規則<sup>1)</sup>이다. 이 규칙을 시작으로 하여 한국의 각종 목록규칙들이 발행되었다. 이들 목록규칙들은 국제적인 목록규칙의 표준화의 흐름을 따르는 한편으로 한국 고유의 자주성을 유지하려는 노력도 있었다. 새로운 국제목록원칙규범(안)<sup>2)</sup>이 2003년 베를린 IFLA 총회에 앞서 7월에 열렸던 국제목록전문

1) 朴奉石 編, 朝鮮東書編目規則(서울: 國立圖書館, 1948). 이 목록규칙은 편자가 1947년에 국립조선도서관학교의 강의교재로 등사한 東書編目法(講義用草案)을 기초로 한 것으로 1954년에는 그 개정판을 국립도서관에서 출판하였다.

2) *Statement of International Cataloguing Principles*. Draft approved by the IFLA Meeting of Experts on an International Cataloguing Code, 1st(Frankfurt, Germany, 2003), <[http://www.ddb.de/news/pdf/statement\\_draft.pdf](http://www.ddb.de/news/pdf/statement_draft.pdf)> [cited 2005. 7. 12]

가회의(International Meeting of Cataloging Experts on an International Cataloguing Code) 결과 작성되었다. 일반적으로 '파리원칙'(Paris principles)으로 알려진 목록원칙규범은 1961년 국제목록원칙회의(International Conference on Cataloging Principle)에서 승인되어, 목록 작성을 위한 국제 표준화의 기반으로 사용하기 위한 이 원칙의 목표는 분명히 달성되었다. 이 원칙이 선언된 이래 전 세계에서 제정된 대부분의 목록규칙은 엄밀하게 혹은 적어도 상당한 수준에서 이 파리원칙을 준용하였다. 한국목록규칙 역시 예외는 아니었다. 21세기를 맞이하면서 IFLA는 온라인목록과 그 이상의 것에도 적용할 수 있는 목표에 이 파리원칙을 적용하고자 노력해 왔다. 이 새로운 원칙은 텍스트로 된 저작에서부터 모든 유형의 자료에 이르기까지, 또 표목의 선정과 형식에서부터 도서관 목록에서 사용되는 서지레코드(저록)와 전거레코드의 모든 부문에 이르기까지 기존의 파리원칙을 대체하거나 확장한 것이다. 이 새로운 원칙의 주요한 특징 중의 하나는 기본표목의 개념을 더 이상 적용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국제적으로는 새로운 국제목록원칙규범이 발표되고 국내적으로는 KCR4가 발간되는 목록환경의 변환기를 맞아 한국에서도 목록규칙에 대한 재점검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생각된다. 따라서 이 논문에서는 한국목록규칙의 표준화 과정을 먼저 살펴 본 후, 새로운 국제목록원칙규범에서 제시한 목록규칙의 제정목표를 고려하면서 KCR4에 반영된 목록의 유용성을 분석해보고자 한다.

## II. 한국목록규칙의 표준화 과정

한국인에 의해서 편찬된 최초의 근대적인 목록규칙은 전술한 박봉석이 편찬한 朝鮮東書編目規則이다. 이 규칙은 해방 후 혼란기에 편자 자신의 오랜 실무 경험과 기존의 일본의 和漢圖書目錄法 등을 참고하여 편성한 목록규칙으로 동양적 전통에 따라 서명을 위주로 한 서명표목원칙을 고수하고 있다. 당시 이미 1908년에 최초의 국가간(영국과 미국)의 합의에 의한 국제 공동목록규칙인 Anglo American Code가 발간되어 저자명기본표목이 국제적으로 보편화되어 가고 있는 상황에서 이를 朝鮮東書編目規則에 반영하지 않은 것은 이 규칙이 동양서만을 위한 규칙이기 때문이었으나 어떤 면에서는 우리 고유의 전통을 고수한 자주적인 측면도 있다고 하겠다. 이 규칙은 KCR 초판이 제정되기 전에는 한국의 도서관계에서 보편적으로 사용되었던 것이었으나 국제적 표준화라는 당시의 목록학계의 추세를 제때에 반영하지 못한 까닭에 한국의 표준목록규칙으로 계속 발전하지는 못하였다.

1954년에는 고재창에 의하여 韓銀圖書編目法<sup>3)</sup>이 편찬되었다. 이 규칙은 朝鮮東書編目規則, Anglo American Code, 일본의 목록규칙 및 서양서목록 지침서 등을 참고하여 만든 것으로 당시

3) 高在昶 編, 韓銀圖書編目法 : 東書·西書共用(서울 : 韓國銀行調查部, 1954).

#### 4 한국도서관·정보학회지(제36권 제3호)

국제적 추세였던 저자명기본표목원칙을 적용한 동양서와 서양서 공용의 목록규칙이다. 이 규칙은 단행본 이외에 연속간행물(책차 및 전기간행서) 및 비도서자료(악보, 음반, 사진, 지도 등)에 관한 규칙도 포함하고 있다.

1955년에는 박희영에 의하여 東書目錄規程: 草案<sup>4)</sup>이 편찬되었다. 이 규칙은 日本目錄規則 1952년판(日本圖書館協會目錄委員會 編)을 참고하여 편찬한 것으로 저자명기본표목원칙을 적용한 동양서를 위한 목록규칙이다. 이 규칙은 독창성이 결여된 점이 있었으나 1955년 이후 도서관 실무강습회에서 강의 교재로 KCR 초판이 제정될 때까지 사용되었던 까닭에 저자명기본표목원칙을 한국의 도서관계에 널리 보급시킨 점은 인정된다.

앞서 살펴 본 3가지의 목록규칙은 모두 개인이 편찬한 것으로 한국의 표준목록규칙으로 받아들여지기가 어려웠으며, 무엇보다도 1961년의 파리 국제목록원칙회의 결과 저자명기본표목원칙을 국제적 표준으로 채택하였기 때문에 국제적 목록규칙의 추세를 반영한 새로운 표준목록규칙의 제정이 필요하였다. 그리하여 국제목록원칙회의에서 결정된 여러 원칙을 토대로 기존의 ALA 목록규칙 1949년판, 바티칸도서관목록규칙 1948년판, 박봉석의 동서편목규칙 1948년판, 일본목록규칙 1952년판을 참고하여 한국도서관협회 기술위원회 목록분과위원인 백린, 유영현, 윤병태, 장일세, 천혜봉 등이 1962년 표목의 선정과 형식만으로 된 韓國目錄規則(案)을 油印으로 먼저 공개한 후 나머지 기술과 편성 및 전체를 마무리 하는 작업은 개편된 목록분과위원인 장일세, 백린, 이철규 등에 의하여 1964년에 드디어 한국의 국가표준목록규칙으로서 韓國目錄規則의 초판<sup>5)</sup>(KCR1이라 약칭함)이 발행되었다. 초판이 발행된 2년 후인 1966년에는 초판의 교정 및 약간의 증보를 가한 그 수정판<sup>6)</sup>(KCR2라 약칭함)을 출판하였으나 그 구성에는 큰 차이가 없다. KCR1과 KCR2의 주요한 특징은 저자명기본표목의 원칙을 충실히 따랐으며, 표목의 형식을 한글로만 하고, 외국인명과 서명 등은 번자표목으로 하며, 구두점을 사용하며, 성과 이름 사이는 반드시 쉽표(.)를 찍도록 한 점이다. 한국인에게도 성과 이름 사이에 쉽표를 사용하도록 한 것은 관용법을 전혀 무시하고 지나치게 표준화만을 추구한 것으로 많은 비판을 받았다.

서지기술의 국제적 표준화와 자동화 목록을 위한 ISBD(M) 표준 제1판<sup>7)</sup>이 1974년에 출판되었다. 이 ISBD의 출판을 계기로 한국에서도 ISBD에 준한 한국목록규칙 제3판<sup>8)</sup>(韓國圖書館協會制定 1983, KCR3이라 약칭함)을 1983년에 출판하였다. 이 규칙은 동양서와 서양서의 단행본에

4) 朴熙永 編, 東書目錄規程: 草案(서울: 國立圖書館, 1955).

5) 韓國圖書館協會 編, 韓國目錄規則(서울: 韓國圖書館協會, 1964).

6) 韓國圖書館協會 編, 韓國目錄規則, 修正版(서울: 韓國圖書館協會, 1966).

7) International Federation of Library Associations and Institutions, *ISBD(M): International Standard Bibliographic Description for Monographic Publications*(London: IFLA International Office for UBC., 1974).

8) 韓國圖書館協會 制定, 韓國目錄規則: 記述·標目·指示編, 3版(서울: 韓國圖書館協會, 1983). 이 규칙은 1990년 책의 지형을 바꾸지 않는 범위 내에서 3판의 오자와 탈자 그리고 내용의 오류를 수정한 이른바 3.1판을 출판한 바 있다.

공히 적용할 수 있는 것으로 ISBD의 구두점을 적용하고, 기술부와 표목부를 각기 독립시키는 목록 기입 방식을 채용하고 있다. 또한 한국 사전계의 관용에 따라 한국인명의 성과 이름 사이에 쉼표(.)를 찍지 않는 형식을 취하고 있어 표준화의 경향을 따르되 관용법도 중요시 하였다. 그러나 이 규칙은 단행본에 국한 되었으며, 표목에 관해서는 카드목록을 염두에 둔 표목을림지시만 제시하여 불완전한 규칙이었다.

한편으로 자동화목록법에 대한 관심이 고조되어 단행본용의 경우 당시의 USMARC과 UKMARC를 바탕으로 한국문헌자동화목록법(KORMARC)의 실험용 포맷이 1980년에 개발된 이후 1981년 표준용 포맷과 1984년의 그 개정, 1991년 한국정보관리학회의 개정안을 거쳐 1993년에 KS 포맷<sup>9)</sup>으로 발표되었다. 이외에도 각종의 자료를 위한 KORMARC이 속속 개발되었는데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 한국문헌자동화목록형식: 연속간행물용(KS C 5795). 국립중앙도서관, 1995.
- 한국문헌자동화목록형식: 비도서자료용(KS C 5969). 국립중앙도서관, 1996.
- 한국문헌자동화목록형식: 고서용(KS X 6006 6). 국립중앙도서관, 2000.
- 한국문헌자동화목록형식: 전거통제용(KS X 6006 4). 국립중앙도서관, 1999.
- 한국문헌자동화목록형식: 소장정보용(KS X 6006 5). 국립중앙도서관, 1999.

또한 이들 KORMARC 포맷에 입력하는 기술규칙으로서 한국문헌자동화목록법기술규칙이 자료 유형별로 발표되었다. 단행본용의 경우 1980년 이래 초기에는 ISBD를 적용하면서 자체적으로 결정해야 할 재량사항과 예외적 결정사항을 정리하여 1982년 국제표준서지기술법에 의한 한국문헌기술세부규칙을 출간하여 사용하여 오다가 1983년 한국문헌자동화목록법 기술규칙: 단행본용(KORMARC 기술규칙이라 약칭함) 예비노트판을 출판하였다. 이 예비노트판은 국립중앙도서관의 인쇄카드 배포를 기점으로 단일 도서관의 사용에서 여러 인쇄카드 이용 도서관들에게 공지할 필요가 대두되어 1985년 예비노트보완판<sup>10)</sup>으로 개정하여 출간되었다. 이 규칙은 KCR4가 출판되어 KCR과 통합되기까지 KORMARC 포맷을 사용하는 많은 도서관에서 사용되었으며, KCR4가 출간된 이후에도 아직까지 계속 사용하고 있는 도서관도 있다. 이 규칙은 단행본 이외에도 자료 유형별 KORMARC 포맷이 발표될 때마다 해당 기술규칙이 각각 발표되었다.<sup>11)</sup>

KORMARC 기술규칙은 ISBD를 근간으로 하여 제정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들의 기술규칙 내

9) 국립중앙도서관, 한국문헌자동화목록형식 : 단행본용(KSC5867)(서울 : 국립중앙도서관, 1993).

10) 국립중앙도서관 전산실 편, 한국문헌자동화목록법기술규칙 : 단행본용. 예비노트 보완판(서울 : 국립중앙도서관, 1985).

11) 국립중앙도서관에서 「한국문헌자동화목록기술규칙」의 연속간행물용(1995), 비도서자료용(1996), 고서용(2000) 등이 출판되었다.

용을 자세히 비교해 보면 서지기술의 원칙에 대한 견해차를 보이고 있는 곳이 많다. 이로 인하여 KORMARC 기술규칙이 ISBD의 서지기술원칙을 보다 원론적으로 수용하고 있는 KCR3과도 규칙의 일부에서 상치되는 결과를 갖고 왔으며, 나아가 KCR3이 출간된 후에도 KORMARC 기술규칙의 개정 보완이 계속되고 여러 도서관에서 적용됨으로써 한국 도서관계의 목록규칙이 이원화 된 원인이 되었다.<sup>12)</sup> 이러한 이원화의 문제와 단행본 이외의 자료에 대한 KCR의 규칙 부재, 기계가 독목록의 보편화로 인한 전통적으로 사용되어 온 표목의 선정과 형식의 문제를 새로운 시각에서 접근할 필요성이 제기되어 2003년 일련의 KORMARC 기술규칙들을 수용한 통합목록규칙으로 한국목록규칙 제4판<sup>13)</sup>(KCR4라 약칭함)이 출판되었다. 이 규칙은 한국의 목록규칙 중에서 목록의 기능을 처음으로 제시한 점, 여러 유형의 자료를 수용한 점, 화상자료와 영상자료를 통합한 점, 표목 대신 접근점이란 용어를 사용한 점, 저록에 포함되는 책임표시의 수에 원칙적으로 제한을 가하지 않은 점, 기본표목을 규정하지 않은 점, 통일표목을 적용하지 않은 점, 우리의 사고와 언어관습에 맞는 형식을 도입 한 점 등을 특징으로 들고 있다.<sup>14)</sup> 그러나 이들 특징 중 기본표목을 규정하지 않은 점은 국제목록원칙규범(2003년 안)에서의 권고에서 보듯이 자동화 목록 환경에서는 당연한 조치로 여겨지나 접근점의 선정과 형식에 대해서는 전거에서 처리하도록 미루고 있는 것은 무책임한 일로 비친다. 왜냐하면 KCR4는 20년 만에 개정된 것으로 그간 접근점의 선정과 형식에 대해서 나름대로 연구가 진행되어 오던 것인데, 또다시 이에 대한 규정을 전거에서 처리하도록 한다는 것은 이 분야는 표준화를 포기한 것으로 밖에 이해되지 않는다. 그간의 한국 목록계의 행태로 볼 때 전거를 위한 접근점의 선정과 형식에 대한 새로운 국가 표준규정의 제정을 기대하기가 어렵기 때문이다. 결국은 도서관 나름대로 각기 적용해 오던 관행이나 경험에 따라 접근점의 선정과 형식이 결정되도록 방치하는 꼴이 되어 표준화는 기대하기 힘들게 되어 버렸다.

전술한 바와 같이 KORMARC은 서지정보용, 전거통제용, 소장정보용으로 크게 3가지 종류의 형식이 개발되었다. 서지정보용은 단행본용, 연속간행물용, 비도서용, 고서용 등 4가지가 각각 시기를 달리하여 순차적으로 개발되어 사용되어, 이들 KORMARC 포맷간의 통일성 문제가 대두되고, 일부 국제적인 표준화의 문제점 등을 보완하기 위하여 통합서지용 포맷 안<sup>15)</sup>을 2004년에 발간하여 도서관계의 의견을 수렴하고 있는 중이다.

이로써 앞으로는 기술 목록규칙은 KCR4를 사용하고, MARC 포맷은 KORMARC 통합서지용을 사용하게 되어 서지기술에서만큼은 한국 도서관에서의 표준화가 증대될 것으로 예상된다.

12) 도태현, 한국의 목록규칙 변천사(서울 : 한국도서관협회, 2003), pp.151-152.

13) 韓國圖書館協會 目錄委員會 編, 韓國目錄規則, 第4版(서울 : 韓國圖書館協會, 2003).

14) 상계서, pp.ix-x.

15) 국립중앙도서관, 한국문헌자동화목록형식(안) : 통합서지용(서울 : 국립중앙도서관, 2004).

### Ⅲ. 한국목록규칙 4판에 반영된 목록의 유용성

새로운 국제목록원칙규범에서 제시한 목록규칙의 제정목표를 고려해 볼 때 2003년에 개정된 KCR4는 과연 목록이용자를 위해서 어느 정도 목록의 유용성을 고려하고 있을까? 전판들과 비교하여 볼 때 긍정적인 면과 부정적인 면이 상존한다. 이 양 측면을 중심으로 KCR4에 반영된 중요한 몇 가지 목록의 유용성 문제를 분석해 보고자 한다.

#### 1. 긍정적인 면

KCR4에서의 목록의 유용성 고려라는 측면에서 긍정적인 면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은 것을 들 수 있다.

첫째로, 저록에 포함되는 책임표시(저자 등)의 수에 원칙적으로 제한을 가하지 않은 점을 들 수 있다. KCR3에서는 저자나 부차적 역할의 저자가 각기 넷 이상일 경우에는 그 첫 저자 또는 대표저자만을 책임표시에 기재하고, 나머지 저자의 기재는 생략하도록 규정하였으며(1.1.5.9), AACR2R<sup>16)</sup>에서도 저작이 넷 이상의 저자를 가지고 있고 동시에 그 중 어느 누구도 대표저자가 아니며 동시에 어떤 단체도 책임을 갖고 있지 않을 경우에는 표제명을 기본표목으로 하고 기본정보원에 첫 번째로 이름이 표시되어 있는 개인명이나 단체명은 부출표목으로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21.6C2). ISBD(M) 2002년판<sup>17)</sup>에서는 다수의 개인명 또는 단체명이 단일 저자표시로 표시되어 있는 경우, 옮겨 적는 이름의 수는 서지기관의 재량에 따르도록 하고 있다(1.5.4.3). 이들 규정으로 인해 이용자 입장에서는 대표저자나 첫 저자 이외의 공저자에 대한 접근이 제한되어 왔다. 사실 이러한 규정은 목록카드 시절의 기재 공간의 제한으로 인한 부득이한 조치를 그대로 유지시켜 오던 것으로 자동화 목록 환경에서 마땅히 개선되었어야 했던 것이다.<sup>18)</sup> 따라서 KCR4에서는 으뜸정보원에 기재된 책임표시나 부차적 역할의 책임표시는 그 전부를 기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다(1.1.6.2 7). 이러한 접근점의 확대는 목록이용자의 입장에서 볼 때는 목록의 검색성을 제고한 것으로 판단된다.

둘째로, 기술 대상자료의 유형을 제시하여 이용의 편의를 제공하고 있다는 점이다(1.1.2.0). 이 자료 유형표시는 ISBD나 AACR2(AACR2R 1.1C)에서 이미 임의규정으로 적용해 오던 GMD(General

16) *Anglo American Cataloguing Rules*, 2nd ed., 2002 revision(Chicago : American Library Association., 2002).

17) International Federation of Library Associations and Institutions. *ISBD(M) : International Standard Bibliographic Description for Monographic Publications*, 2002 Revision.

[http://www.ifla.org/VII/s13/pubs/isbd\\_m0602.pdf](http://www.ifla.org/VII/s13/pubs/isbd_m0602.pdf) [cited 2005. 7. 12]

18) 정필모, “온라인환경에서의 편목법,” 圖書館學論集, 第25輯(1996), p.14.

Material Designation)를 한국의 실정에 맞게 적용한 것으로 형식 상 임의의 규정이 아닌 정규의 규정으로 제시하였다는데 의의가 있다고 본다. 사실 이 문제는 그 동안 한국의 목록학계에서 필요성이 제기되어 오던 것으로,<sup>19)</sup> 오늘날과 같이 다양한 유형의 자료가 목록상에서 혼재하고 있는 상황에서는 이용자로 하여금 자료의 유형을 빠르게 식별할 수 있도록 한다는 점에서 대단히 필요한 사항이다. KCR4에서의 자료유형의 적용은 각 장에서 규정하고 있는 자료유형(아래의 → 다음에 제시한 것)을 적용함을 원칙으로 하되, 포괄적인 유형을 적용할 경우에는 다음과 같이 자료를 구분하여 사용할 수 있다(1.1.2.1).

단행본(book)

지도자료(cartographic material) → 제3장(3.1.2.1): 지도자료, map, 지구의, globe

고서와 고문서(antiquarian and manuscript)

악보(music) → 제5장(5.1.2.1): 악보, music

녹음자료(sound recording) → 제6장(6.1.2.1): 녹음자료, sound recording

화상자료(graphic material) 및 영상자료(videorecording) → 제7장(7.1.2.1): 화상자료,

graphic material, 영화, motion picture, 비디오녹화자료, videorecording

전자자료(electronic resource) → 제8장(8.1.2.1): 전자자료, electronic resource

입체자료(three dimensional artefacts and realia) → 제9장(9.1.2.1): 입체자료, 3D

마이크로자료(microform) → 제10장(8.1.2.1): 마이크로자료, microform

연속간행물(serial)

점자자료(braille) → 제12장(12.1.2.1): 점자자료, braille

자료유형의 기술방법(1.1.2.2)은 본표제 다음에 각괄호([ ])로 묶어 기재하며, 종합표제 대신 개별 저작의 표제를 기술한 경우에는 마지막 표제 다음에 기재한다. 복제본의 경우, 해당 복제물의 자료유형을 기재한다(예: 지도를 슬라이드로 복제한 경우, 슬라이드로 자료유형을 표시한다). 두 가지 이상의 자료의 유형을 기술할 필요가 있을 경우 그 주된 유형을 기재하고, 나머지를 ‘[악보(점자자료)]’와 같이 원괄호(( ))로 묶어 부기할 수 있다. 인쇄자료 중 문자로 쓰여진 자료(단행본, 고서와 고문서, 인쇄형식의 연속간행물 등)는 자료유형표시를 생략할 수 있으며, 단일유형의 목록만을 유지하는 경우에도 이를 생략할 수 있다. 이 자료유형표시의 적용으로 목록의 식별성을 제고하였다.

19) 李千孝, “英美系 目錄規則의 非圖書資料에 대한 GMD와 SMD의 變遷過程,” 東萊女子專門大學論文集, 第6輯(1987, 12), pp.161-197; 南台祐, “非圖書資料의 媒體表示에 관한 研究,” 圖書館學, 第15輯(1988), pp.119-140; 이창수, “목록에서의 자료종별표시에 관한 연구,” 圖書館學論集, 第25輯(1996 겨울호), pp.377-404 등의 논문에서 이 문제를 다루고 있음.



셋째로, 자료의 서지적 특성을 제시하는 기술사항을 추가함으로써 이용자로 하여금 특정 자료의 간행상의 특성이나 기타 특이 사항을 쉽게 파악할 수 있게 하였다. ISBD의 원칙을 따른다고 하면서도 KCR3에서는 단행본만을 위한 규칙인 관계로 이 사항이 포함되어 있지 않았다. 이미 ISBD에서는 ISBD(CR)<sup>20)</sup>, ISBD(CM)<sup>21)</sup>, ISBD(PM)<sup>22)</sup>, ISBD(ER)<sup>23)</sup> 등에서 이 사항이 적용되어 계속자료의 권호차·연월차사항, 지도자료의 축척 및 좌표에 관한 사항, 악보의 종류에 관한 사항, 전자자료의 자료 내용 및 크기에 관한 사항 등을 기술하도록 하고 있다. 또한 AACR2R에서도 지도자료(3장), 악보(5장), 전자자료(9장), 계속자료(12장), 마이크로자료(11장) 등에서 이 사항이 적용되고 있다(1.3A). KCR4에서 적용된 유형별 자료특성사항은 다음과 같다(1.3.1).

지도자료	축척 및 좌표에 관한 사항
악보	악보의 종류에 관한 사항
전자자료	자료내용 및 크기사항
마이크로자료	자료유형별 특성
연속간행물	권호차, 연월차에 관한 사항
입체자료	축소 및 확대비율에 관한 사항

자료의 특성을 기술하는 방법은 KCR4의 해당자료의 장에서 별도로 규정하며(1.3.2), 특정 자료가 복수의 특성을 지닌 경우, 자료유형(1.1.2.1)의 기술에 따라 대응되는 사항을 기술한다(1.3.3).

넷째로, 단행본뿐만 아니라 다양한 유형의 자료를 대상으로 하는 통합 목록규칙이라는 점이다. 종래의 한국의 목록규칙에서는 韓銀圖書編目法에서 단행본 이외에 연속간행물(축척 및 전기간행서) 및 비도서자료(악보, 음반, 사진, 지도 등)이 포함된 것, KCR1과 KCR2에서 축척간행물이 포함된 것이 있었으며, KORMARC 기술규칙에서 연속간행물, 비도서자료, 고서 등이 별도로 발표되어 사용되었으나 통합된 목록규칙은 없었다. KCR4에는 단행본을 포함한 지도자료, 고서와 고문서, 악보, 녹음자료, 화상자료와 영상자료, 전자자료, 입체자료(실물), 마이크로자료, 연속간행물,

20) International Federation of Library Associations and Institutions, *ISBD(CR) : International Standard Bibliographic Description for Serials and Other Continuing Resources*(Muenchen : K.G. Saur, 2002)  
 21) International Federation of Library Associations and Institutions, *ISBD(CM) : International Standard Bibliographic Description for Cartographic Materials*, Revised edition(London : IFLA Universal Bibliographic Control and International MARC Programme, 1987)  
 22) International Federation of Library Associations and Institutions, *ISBD(PM) : International Standard Bibliographic Description for Printed Music*, Revised edition(London : IFLA Universal Bibliographic Control and International MARC Programme, 1991)  
 23) International Federation of Library Associations and Institutions, *ISBD(ER) : International Standard Bibliographic Description for Electronic Resources*(Muenchen : K.G. Saur, 1997)

점자자료 등이 포함되어 있다. 또한 화상자료와 영상자료를 하나의 장(章)에서 다른 점과 점자자료를 별도의 장(章)으로 취급한 점이 특이하다.

## 2. 부정적인 면

KCR4에서의 목록의 유용성 고려라는 측면에서 부정적인 점은 다음과 같은 것을 지적할 수 있겠다.

첫째로, 접근점의 선정과 형식을 전거에서 처리하도록 한 점이다. 전술한 바와 같이 접근점에 관한 사항을 서지기술의 국가 표준인 한국목록규칙에 포함시키지 않고 전거에서 처리하도록 미루어 버리는 것은 개별 도서관의 관행대로 처리하도록 방치하는 결과를 초래하여 결국은 목록규칙 편찬자 또는 목록 작성자의 편의성만을 따른 꼴이 되지 않을까 우려된다. 지난날의 경험으로 볼 때 언제쯤 국가 차원의 별도의 전거를 위한 접근점의 선정과 형식에 관한 규정이 마련될는지 걱정하지 않을 수 없다. 국제목록원칙규범(2003년 안)에서도 접근점의 문제를 규정하고 있는바, 접근점의 선정과 접근점의 형식에 있어서도 인명, 가계명, 단체명, 통일표제 등에 대해서 규정하고 있다. 적어도 각종 접근점의 형식에 대해서 만이라도 표준적인 모델을 목록규칙에서 제시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

둘째로, 특정 표목에 대해 하나의 특정 형식을 표준형식으로 고려하지 않는 즉 통일표목을 적용하지 않는다는 점이다. KCR4에서는 동일 접근점의 상이한 형식간의 연결기법을 통하여 전통적인 표목의 검색기능과 동일한 효과를 얻을 수 있으며, 이에 따라 통일표목의 개념을 목록에서 배제하였다. 이 기법을 통해 특정 표목에 대한 대표형식을 고려할 필요가 없고, 결과적으로 표목의 선정과 형식을 결정하기 위해 소요되는 시간과 비용을 줄일 수 있으면서, 전통적인 표목의 기능을 그대로 유지할 수 있다는 것이다.<sup>24)</sup> 그러나 음악 녹음자료와 같은 특정한 유형의 자료에 있어서는 목록 이용자의 검색성을 고려한 접근점의 확대라는 차원에서라도 통일표제의 개념을 유지되어야 한다고 본다. 왜냐하면 음악 녹음자료는 동일 작곡자의 동일 작품이 발행자에 따라 다양하게 표기되어 있어 배열 시 여러 곳으로 흩어질 뿐 아니라, 서로가 동일 작품이라고 쉽게 판단하기도 어려워 표제 검색의 효율을 높이기 위해서는 통일표제는 필요하다. 아울러 음악 녹음자료는 전문자료라기보다는 대중자료이기 때문에 검색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국내 라이선스판 중 상당한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구문(歐文) 형태의 자료에 대해서는 국문(國文)의 접근점을 부여하여 목록 이용자의 편의성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sup>25)</sup> 통일표목의 개념을 배제함으로써 통일표목의 선정과 형식을 결정하기 위해 소요되는 시간과 비용을 줄일 수 있다는 발상은 목록의 유용성보다는 편목자의 편의성만을 고려한 것으로 여겨진다.

24) 韓國圖書館協會 目錄委員會 編, 전거서, p.x.

25) 손정표, "음악 녹음자료의 표목지시사항 관련 규칙에 관한 연구," 社會科學, 第16輯(2004), p.31.

## IV. 결 언

지금까지 한국에서의 목록규칙의 발전과정을 개관하면서 표준화의 과정을 살펴 본 후 가장 최근에 개정하여 출판된 한국목록규칙 4판을 중심으로 이 규칙에 반영되어 있는 중요한 몇 가지 목록의 유용성 문제를 분석하여 보았는바, 이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 ① 저록에 포함되는 책임표시(저자 등)의 수에 원칙적으로 제한을 가하지 않음으로써 접근점을 확대하여 검색성을 제고하였다.
- ② 기술 대상자료의 유형을 제시하여 이용의 편의를 제공함으로써 목록 이용자로 하여금 자료의 식별을 용이하게 하였다.
- ③ 자료의 서지적 특성을 제시하는 기술사항을 추가함으로써 이용자로 하여금 특정 자료의 간행상의 특성이나 기타 특이 사항을 쉽게 파악할 수 있게 하였다.
- ④ 단행본뿐만 아니라 다양한 유형의 자료를 대상으로 하는 통합 목록규칙이다.
- ⑤ 접근점의 선정과 형식을 전거에서 처리하도록 미루어 목록의 유용성에 있어서 문제점으로 지적된다. 적어도 각종 접근점의 형식에 대해서 만이라도 표준적인 모델을 목록규칙에서 제시할 필요가 있다.
- ⑥ 통일표목의 개념을 배제함으로써 목록의 유용성보다는 편목자의 편의성만을 고려하였다. 음악 녹음자료와 같은 특정한 유형의 자료에 있어서는 목록 이용자의 검색성을 고려한 접근점의 확대라는 차원에서 적어도 통일표제의 개념만이라도 유지되어야 할 것이다.

## 참 고 문 헌

- 高在稔 編, 韓銀圖書編目法 : 東書·西書共用, 서울 : 韓國銀行調查部, 1954.
- 국립중앙도서관, 한국문헌자동화목록형식 : 단행본용(KSC5867), 서울 : 국립중앙도서관, 1993.
- 국립중앙도서관, 한국문헌자동화목록형식(안) : 통합서지용, 서울 : 국립중앙도서관, 2004.
- 국립중앙도서관 전산실 편, 한국문헌자동화목록법기술규칙 : 단행본용, 예비노트 보완판, 서울 : 국립중앙도서관, 1985.
- 도대현, 한국의 목록규칙 변천사, 서울 : 한국도서관협회, 2003.
- 朴奉石 編, 朝鮮東書編目規則, 서울 : 國立圖書館, 1948.
- 朴熙永 編, 東書目錄規程: 草案, 서울 : 國立圖書館, 1955.
- 손정표, "음악 녹음자료의 표목지시사항 관련 규칙에 관한 연구," 社會科學, 第16輯(2004),

pp.29-66.

정필모. “온라인환경에서의 편목법.” 圖書館學論集, 第25輯(1996 겨울호), pp.1-18.

韓國圖書館協會 編. 韓國目錄規則. 서울 : 韓國圖書館協會, 1964.

韓國圖書館協會 編. 韓國目錄規則. 修正版. 서울 : 韓國圖書館協會, 1966.

韓國圖書館協會 制定. 韓國目錄規則 : 記述·標目·올림指示編, 3版. 서울 : 韓國圖書館協會, 1983.

韓國圖書館協會 目錄委員會 編. 韓國目錄規則. 第4版. 서울 : 韓國圖書館協會, 2003.

*Anglo American Cataloguing Rules*, 2nd ed., 2002 revision. Chicago : American Library Association., 2002.

International Federation of Library Associations and Institutions. *ISBD(M) : International Standard Bibliographic Description for Monographic Publications*. London : IFLA International Office for UBC., 1974.

International Federation of Library Associations and Institutions. *ISBD(CM) : International Standard Bibliographic Description for Cartographic Materials*. Revised ed. London : IFLA Universal Bibliographic Control and International MARC Programme, 1987.

International Federation of Library Associations and Institutions. *ISBD(PM) : International Standard Bibliographic Description for Printed Music*. Revised ed., London : IFLA Universal Bibliographic Control and International MARC Programme, 1991.

International Federation of Library Associations and Institutions. *ISBD(ER) : International Standard Bibliographic Description for Electronic Resources*. Muenchen : K.G. Saur, 1997.

International Federation of Library Associations and Institutions. *ISBD(CR) : International Standard Bibliographic Description for Serials and Other Continuing Resources*. Muenchen : K.G. Saur, 2002.

International Federation of Library Associations and Institutions. *ISBD(M) : International Standard Bibliographic Description for Monographic Publications*. 2002 Revision. <[http://www.ifla.org/VII/s13/pubs/isbd\\_m0602.pdf](http://www.ifla.org/VII/s13/pubs/isbd_m0602.pdf)> [cited 2005. 7. 12]

*Statement of International Cataloguing Principles*. Draft approved by the IFLA Meeting of Experts on an International Cataloguing Code, 1st. Frankfurt, Germany, 2003. <[http://www.ddb.de/news/pdf/statement\\_\\_draft.pdf](http://www.ddb.de/news/pdf/statement__draft.pdf)> [cited 2005. 7. 12]